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107-120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107

KJHD

영아기 자녀를 둔 MZ세대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Relatedness as Mediator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of MZ Generation Mothers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5.27. 최종게재결정: 2026.09.19.

오미라[1] · 최윤옥[2] · 민하영[3]
[1]대구과학대학교 청소년평생교육과, 조교수
[2]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전담교수
[3]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Oh, Mi ra[1]
Choi, Yun ok[2]
Min, Ha yeoung[2]
[1]Dept. of Youth & Lifelong Educ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
[2]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국문초록 MZ세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주도적 성격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이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Hayes의 PROCESS macro 4.1(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Z세대 어머니의 소셜미디어 맥락에서 주도적 성격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감, 소통,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 양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주도적 성격, 관계성,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relatedness as a mediator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among MZ generation mothers. The participants were 304 mothers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of South Korea.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through both online and offline metho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 4.1 (Model 4) in SPSS 26.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proactive persona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Second, mother's proactive personality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relatedness. Third, mothers' proactive personality significantly predicted social support on social media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edness, and bootstrapping results showed that the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relatedness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among MZ generation mother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ocial media-based parenting support programs that promote relatedness as a basic psychological need.

Keywords *proactive personality, relatedness, social support in social media*

*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민하영(Min, Ha yeoung)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Dept. of Child Studies, 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hymin@c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잠정 발표된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국가데이터처, 2026),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정책적・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변화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지역 공동체의 약화, 맞벌이 증가 등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양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양육을 함께 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제한된 사회적 지원 속에서 양육 과정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나복영, 조규판, 2023). 이러한 환경은 양육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부담을 증가시키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윤희, 문혁준, 2016).

특히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영미, 송하나, 2015; 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 2016; Sinai & Tikotzky, 2012). 이는 영아기가 잦은 수유와 불규칙한 수면, 지속적인 돌봄 요구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일상 전반에 높은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자녀의 요구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5; 최윤희, 문혁준, 2016). 즉 영아기에 발생하는 높은 양육부담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시키고, 이는 다시 양육 경험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Crnic & Greenberg, 1990). 나아가 생애 초기 3년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기로(Burke & Abidin, 1980), 이 시기 어머니가 경험하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의 질과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Deater-Deckard(1998)는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의 부정적 정서와 반응을 증가시켜 비일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Crnic과 Low(2002)는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자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변인으로 논의되어 왔다(Cohen & Wills, 1985; 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등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며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자원이자 주관적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Caplan, 1987; Lowenthal, 1999).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녕감 향상, 양육효능감 증진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혜금, 조혜영, 2015; 나복영, 조규판, 2023).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최윤희, 문혁준, 201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와 부담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최근 디지털 기술과 인

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오프라인 관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세대적 특성은 이러한 온라인 기반 관계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데이터처(2026)에 따르면 2025년도에 출산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8세이며, 연령분포는 20대가 약 15%, 30대가 78%로 대부분이 MZ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MZ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한다(이세연, 최종훈, 2021).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디지털 환경과 소셜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한 정보 탐색과 관계 형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탐색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자기표현과 관계 중심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박미경, 2022). 이러한 특성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탐색과 경험 공유로 나타난다. 실제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출산 이후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육 정보를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 Martin, 2016; Drentea & Moren-Cross, 2005; Gleeson, Craswell, & Jones, 2019; Madge & O'Connor, 2006; Oh, 2020). 특히 MZ세대 어머니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 SNS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소셜미디어를 양육경험 기록,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지수, 2024).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은 사회적 지지 인식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며(이항, 김준환, 2011),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와 SNS 활동은 육아 초기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2019).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MZ세대 어머니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 획득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Mertens, Ye, Beuckels & Hudders, 2024). 다만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경험이 모든 양육자에게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의 효과를 단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MZ세대 어머니가 소셜미디어상에서 긍정적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Cohen과 Wills(1985)은 이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선택과 참여를 기반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특성을 갖는다(이상돈, 이수영, 김군주,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셜미디어라는 동일한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상호작용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제공되는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도적 성격(proactive personality)은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Bateman과 Crant(1993)가 제시한 주도적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욕구, 감정 및 견해를 표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주장성(assertiveness)이나(Lorr, More, & Mansueto, 1981), 새롭게 일을 솔선하려는 자주성(initiativeness)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주도적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Bateman & Crant, 1993).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주어진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며,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Seibert, Crant, & Kraimer, 1999). 나아가 이들은 환경적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

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문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특성을 나타낸다(이소정, 이운경, 2023).

주도적 성격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최미숙, 곽성희, 이재창, 2018),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확장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Wanberg & Kammeyer-Mueller, 2000). 또한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박지성, 채희선, 2018). 주도적 성격이 높은 사람은 주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관계 형성과 자원탐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주도적 성격과 유사하게 거론되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외향성은 SNS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향적인 개인은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네트워크 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이용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태, 허재강, 전계형,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도적 성격 역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형성과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도적 성격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relatedness)이 있다. 관계성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근거한 개념으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이다(Ryan & Deci, 2000).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또한, 관계성 욕구 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을 경험하고, 동일한 상호작용 환경에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Ryan & Deci, 2000; Lakey & Cohen, 2000;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이러한 기본심리욕구의 관계성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도적 성격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관계성 욕구 충족에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Tokar, Savickas, & Kaut, 2020). 이와 관련하여 주도적 성격과 유사한 성실성이나 외향성과 같은 성격 특성 역시 관계성을 포함한 기본심리욕구의 선행 변인으로 기능하며, 기본심리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Xu, Stephens, & Lee, 2022).

한편 성격-동기-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이 직접적으로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심리적 욕구와 같은 동기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Barrick, Stewart, & Piotrowski, 2002).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을 포함한 자기결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도적 성격이 자기결정성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구조를 보여주었다(김유진, 민하영, 2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MZ세대 어머니의 소셜미디어상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가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탐색하고 활용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 어머니는 디지털 기반 정보 탐색과 경험 공유에 익숙하고, 소셜미디어는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동적 환경이라는 점에서 주도적 성격은 지지 경험을 촉진하는 중요한 개인 특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는 정보 획득뿐 아니라 공감과 정서적 연결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관계성은 주도적 성격이 사회적 지지 지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어머니의 관계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간접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중 양육과 관련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에 응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63세(SD = 4.10)로 30대가 229명(75.3%), 20대가 45명(14.8%), 40대가 30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을 위해 고려한 자녀의 평균 개월 수는 24.57개월(SD = 7.76)로 12개월 미만이 33명(10.9%),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 98명(32.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 173명(56.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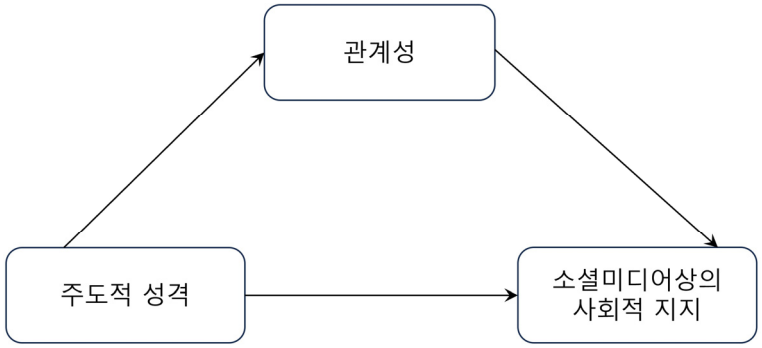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 (N = 304)

변인	변인 구분	빈도(%)
어머니	연령	20대 45명(14.8%)
		30대 229명(75.3%)
		40대 30명(9.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명(9.5%)
		2년(3년)제 졸업 69명(22.7%)
		4년제 졸업 이상 206명(67.8%)
	취업여부	취업 93명(30.6%)
		미취업 211명(69.4%)
자녀	자녀 수	1명 192명(63.2%)
		2명 이상 112명(36.8%)
	출생 순위	첫째 215명(70.7%)
		둘째 이상 89명(29.3%)
	개월 범주	12개월 미만 33명(10.9%)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98명(32.2%)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73명(56.9%)

2. 측정도구

1) 주도적 성격

주도적 성격은 Seibert 등(1999)의 주도적 성격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항상 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들도록 그것을 변화시킨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드물게 그렇다(3점)’, ‘가끔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5점)’, ‘거의 그렇다(6점)’, ‘항상 그렇다(7점)’의 7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0점 ~ 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도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으로 확인되었다.

2) 관계성

어머니의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 Ryan과 Deci(2002)의 기본심리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BPNS)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 타당화한 것 중 관계성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등의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약간 아니다(3점)’, ‘약간 그렇다(4점)’,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6점 ~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70으로 확인되었다.

3)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어머니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오미라와 민하영(2024)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육아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의 육아 행동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다.’ 등의 정서적 지지 4문항, 평가적 지지 4문항, 정보적 지지 4문항,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가능 범위는 12점 ~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자각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80, 평가적 지지 .79, 정보적 지지 .74였고,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전체 신뢰도는 .87로 확인되었다.

3. 연구절차

설문 조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경로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대구 경북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의 시설장에게 연구 동의를 구한 후 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분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URL링크와 QR코드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347명의 자료 중 한 문항이라도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최종 30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 분석에 사용된 304부의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 4.1 버전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했으며 5000회의 Bootstrapping 지정과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의 매개효과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주도적 성격은 7점 척도에서 항목 평균 4.47(*SD* = .86), 관계성은 6점 척도에서 항목평균 4.26(*SD* = .74),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는 5점 척도에서 항목평균 3.63(*SD* = .61)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변인의 평균이 해당 척도의 중간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주도적 성격의 왜도는 -.28, 첨도는 .81, 관계성의 왜도는 .09, 첨도는 -.47,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의 왜도는 -.18, 첨도는 .27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 절댓값은 3 미만, 첨도 절댓값은 7 미만으로 나타나(West, Finch, & Curran, 1995), 본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는 매개효과 검증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기 위해(Baron & Kenny, 1986)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r = .52, p < .01) 및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r = .54,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관계성과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4, p < .01). 이는 주요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1)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과 같이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6, p < .001).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1,\ 302)}$ = 124.51, p < .001), 본

표 2. 변인 간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N = 304)

	주도적 성격	관계성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주도적 성격	1		
관계성	.52**	1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54**	.44**	1
M	4.47	4.26	3.63
SD	.86	.74	.61
왜도	-.28	.09	-.18
첨도	.81	-.47	.27

**p < .01.

표 3.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B	*SE*	*t*	95% *CI*	
				LL	*UL*
(상수)	23.24	1.86	12.50***	19.58	26.89
주도적 성격	.46	.04	11.16***	.38	.54
R^2 = .29, $F_{(1,302)}$ = 124.51***					

***p < .001.

모형의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도적 성격은 관계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7, p < .001). 또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_{(1,\ 302)}$ = 112.75, p < .001),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과 관계성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과 관계성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36, p < .001), 관계성 또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35,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관계성을 포함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_{(2,301)}$ = 72.60, p < .001). 표 3에 나타난 총효과(B = .46)와 비교해 보면, 관계성을 통제한 후 주도적 성격의 직접효과(B = .36)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관계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분매개가 나타났음을 토대로,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을 통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9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04)과 상한값(.15)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Shim, Suh, & Kim, 2022).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보여준다. 즉,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관계성이 높게 형성되며, 이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경로로 작용한다.

표 4.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 관계성					
	B	*SE*	*t*	95% *CI*	
				LL	*UL*
(상수)	13.58	1.15	11.85***	11.32	15.83
주도적 성격	.27	.03	10.62***	.22	.32
R^2 = .27, $F_{(1,302)}$ = 112.7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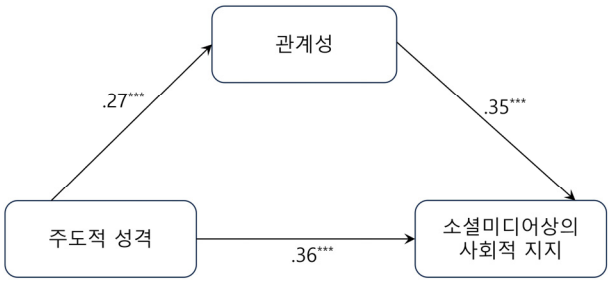
표 5.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과 관계성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B	*SE*	*t*	95% *CI*	
				LL	*UL*
(상수)	18.45	2.20	8.39***	14.12	22.78
주도적 성격	.36	.05	7.72***	.27	.45
관계성	.35	.09	3.87***	.17	.53
R^2 = .33, $F_{(2,301)}$ = 72.60***					

***p < .001.

표 6.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구분	*Effect*	*Boot SE*	95% *CI*	
			LL	*UL*
간접효과	.09	.03	.04	.15



***p < .001.

그림 2. 관계성의 매개효과 모형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MZ세대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자원을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Bateman & Crant, 1993; Seibert et al.,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육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능동적으로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Gibson & Hanson, 2013; Madge & O'Connor, 2006; Oh, 2020). 이는 주도적 성격과 유사한 특성으로 거론되는 외향성이 SNS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SNS를 통해 정보 공유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게 된다는 연구(최예나, 황하성, 2016)와도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또한, 본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고 탐색,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Cohen과 Wills(198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주도적 성격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형성과 지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MZ세대 어머니의 양육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MZ세대 어머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육 정보를 탐색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데 익숙하지만, 동일한 디지털 환경이 모든 어머니에게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가 환경 자체의 특성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어머니가 그 환경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관계 맺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은 기본심리욕구인 관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심리적 욕구와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개인의 성격 특성이 기본심리욕구의 형성과 충족에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Xu et al., 2022)을 지지한다.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며(Bateman & Crant, 1993; Seibert et al., 1999), 이러한 특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도적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먼저 접근하고 상호작용을 주도하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이는 주도적 성격이 높은 개인일수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연구(Wanberg &

Kammeyer-Mueller, 2000)와 일치한다. 또한 주도적 성격과 유사한 변인으로 거론되는 외향성과 성실성이 타인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Losoya, Callor, Rowe, & Goldsmith, 1997)는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이처럼 주도적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행동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성 욕구 충족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관계성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성 욕구 충족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Ryan & Deci, 2000)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관계성은 타인과 의미 있는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관계성 욕구 충족은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관계성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개인일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지지적 경험을 보다 의미 있게 해석하고, 이를 사회적 지지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아 다양한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인의 참여 정도와 상호작용 방식에 따라 경험하는 관계의 질과 지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오은해, 이정화, 이정애, 2019; 이상돈 등, 2015). 따라서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 개인일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서적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욱 강하게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 정보 획득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과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을 중요한 이용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노지영, 주효진, 2012)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정량적으로 제공된 정보나 반응의 양에 국한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를 얼마나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지지로 해석하는가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아기 자녀의 양육 특성상 오프라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는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지지 형성과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매개로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 성격이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결과는 어머니가 소셜미디어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정보의 양이나 접속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이러한 관계적 경험이 축적될 때 어머니는 소셜미디어를 지지적인 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성격 특성이 행동이나 결과 변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심리적 욕구와 같은 동기적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성격-동기-행동 간 관계 모형(Barrick et al., 2002)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러한 경험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로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주도적 성격이 관계성 욕구 충족을 촉진하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관계성 욕구의 충족이 다시 사회적 지지의 지각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주도적 성격이 자기결정성을 매개로 직무 관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유진, 민하영, 2021)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성격과 동기 간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경험과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네트워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욕구를 경험하고 이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적 경험이 관계성 욕구의 충족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이를 탐색,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과 함께, 관계성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반의 양육 지원 체계에서는 어머니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정서적 유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강화하여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경험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반응이 사회적 지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관계성 경험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관계성 욕구가 오프라인 관계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의 관계성 개념이 MZ세대 어머니의 디지털 양육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소셜미디어 기반 양육지원이 정보 제공 중심에서 관계 형성과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필요한 지원은 양육 지식의 전달뿐 아니라, 유사한 경험을 가진 타인과의 공감, 피드백, 정서적 연결을 포함한다. 따라서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육아지원 플랫폼에서는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 방식뿐 아니라, 어머니들이 자신의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반응하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심의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공감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형 콘텐츠,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등은 관계성 욕구의 충족을 자연스럽게 돕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도적 성격이 높은 어머니는 소셜미디어에서 스스로 자원을 탐색하고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도적 성격이 낮은 어머니는 온라인 공간이 제공되어도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참여를 돕는 안내, 익명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소통 구조, 관심 주제별 소규모 모임, 질문・응답 중심의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프로그램 등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대구・경북권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를 설명하는 변인을 개인 내적 요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집단을 포함하고,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관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 형성과정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기본심리욕구가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 확장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 (2026).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list_no=443686&act=view&mainXml=Y에서 4월 9일 인출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김유진, 민하영 (2021). 보육교사의 주도성과 직무열의 간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79-90. https://doi.org/10.7466/JFBL.2021.39.2.79

김윤경 (2019).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 기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혜금, 조혜영 (2015).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33(6), 1-14.

나복영, 조규판 (2023). 영유아 어머니의 사회적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과 심리적안녕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5(2), 1-20. https://doi.org/10.36431/JPE.15.2.1

노지영, 주효진 (2012). SNS 이용목적이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261-281. https://doi.org/10.18398/kjlgas.2012.26.2.261

박미경 (2022). 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MZ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1), 33-54. https://doi.org/10.46330/jkps.2022.3.22.1.33

박새롬, 노보람, 박혜준, 이순형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과 영유아의 기질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육아정책연구, 9(1), 119-148.

박지성, 채희선 (2018). 주도적 성격과 지식 공유행위, 직무특성, 그리고 조직의 인정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128-137.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128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손수경, 장유나, 노주성, 홍세희 (2016). 부와 모가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 부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육아정책연구, 10(3), 25-50.

오미라, 민하영 (202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31(2), 127-141. https://doi.org/10.15284/kjhd.2024.31.2.127

오은해, 이정화, 이정애 (2019). SNS의 이용동기가 SNS의 사회적 자본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138-149. https://doi.org/10.5392/JKCA.2019.19.04.138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https://doi.org/10.21193/kjspp.2008.22.4.010

이상돈, 이수영, 김군주 (2015).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지지 경험: 페이스 북의 게시글에 대한 타 이용자의 반응유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22(1), 85-121.

이세연, 최종훈 (2021). MZ세대의 멀티퍼소나 특성을 반영한 패션 쇼핑 앱의 UX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8), 123-129

이소정, 이운경 (2023). 취업모의 주도적 성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갈등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4(3), 251-264. https://doi.org/10.5723/kjcs.2023.44.3.251

이항, 김준환 (2011).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특성이 사회적 지지와 구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12(3), 197-222. https://doi.org/10.15719/geba.12.3.201109.197

이희태, 허재강, 전계형 (2019). SNS이용자의 성격유형(외・내향성)을 조절효과로 고려한 SNS상의 사회적 자본과 정보원의 공신력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2(1), 169-194. https://doi.org/10.18032/kaaba.2019.32.1.169

장지수 (2024). MZ세대 부모의 영유아 양육 참여행위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숙, 곽성희, 이재창 (2018). 대학생의 주도적 성격과 소통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8(2), 475-483.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2.047

최예나, 황하성 (2016). SNS 이용자의 성격이 SNS 이용유형과 SNS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7(3), 95-106. https://doi.org/10.7472/jksii.2016.17.3.95

최윤희, 문혁준 (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Arnold, L. B., & Martin, B. A. (2016). Mothering and social media: Understanding, support, and resistance. In L.

B. Arnold & B. Martin (Eds.), *Taking the village online: Mothers, motherhood, and social media* (pp. 1-10). Ontario: Demeter Press.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Barrick, M. R., Stewart, G. L., & Piotrowski, M. (2002). Personality and job performance: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motivation among sales representati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1), 43-51. https://doi.org/10.1037/0021-9010.87.1.43

Bateman, T. S., & Crant, J. M. (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https://doi.org/10.1002/job.4030140202

Burke, W. T., & Abidin, R. R. (1980). Parenting stress index (PSI): A family system assessment approach. In R. R. Abidin (Ed.), *Parenting education and intervention handbook* (pp. 516-527).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Caplan, R. D. (1987). Person-environment fit theory and organizations: Commensurate dimensions, time perspectives, and mechanis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3), 248-267. https://doi.org/10.1016/0001-8791(87)90042-X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https://doi.org/10.1037/0033-2909.98.2.310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https://doi.org/10.2307/1130770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https://doi.org/10.2307/1129878

Crnic, K.,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https://doi.org/10.1111/j.1468-2850.1998.tb00152.x

Drentea, P., & Moren-Cross, J. L. (2005). Soci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n the web: The case of an internet mother site.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27*(7), 920-943. https://doi.org/10.1111/j.1467-9566.2005.00464.x

Gibson, L., & Hanson, V. L. (2013). Digital motherhood: How does technology help new mothers?.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 313-322). New York, NY: ACM. https://doi.org/10.1145/2470654.2470700

Gleeson, M. D., Craswell, A., & Jones, C. M. (2019). Women'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related to childbearing: An integrative review. *Women and Birth, 32*(4), 294-302. https://doi.org/10.1016/j.wombi.2018.10.010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ayes, A. F. (n.d.). PROCESS(Computer Software). Retrieved February 1, 2022, from https://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Lakey, B., & Cohen, S. (2000). Social support theory and measurement. In S. Cohen, L. G. Underwood, & B. H. Gottlieb (Eds.),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pp. 29-52).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med:psych/9780195126709.003.0002

Lee-Baggley, D., Preece, M., & DeLongis, A. (2005). Coping with interpersonal stress: Role of Big Five traits. *Journal of Personality, 73*(5), 1141-1180.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45.x

Lorr, M., More, W. W., & Mansueto, C. S. (1981). The structure of assertiveness: A confirmatory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2), 153-156. https://doi.org/10.1016/0005-7967(81)90039-5

Losoya, S. H., Callor, S., Rowe, D. C., & Goldsmith, H. H. (1997). Origins of familial similarity in parenting: A study of twins and adoptive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12-1023. https://doi.org/10.1037/0012-1649.33.6.1012

Lowenthal, B. (1999). Effects of maltreatment and ways to promote children's resiliency. *Childhood Education, 75*(4), 204-209. https://doi.org/10.1080/00094056.1999.10522017

Madge, C., & O'Connor, H. (2006). Parenting gone wired: Empowerment of new mothers on the internet?.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7*(2), 199-220. https://doi.org/10.1080/14649360600600528

Mertens, E., Ye, G., Beuckels, E., & Hudders, L. (2024). Parenting information on social medi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MIR Pediatrics and Parenting, 7*, e55372. https://doi.org/10.2196/55372

Oh, E. (2020). The strength of information: Maternal education and child-rearing in urban Korea. In H. Park & H. Woo (Eds.), *Korean families yesterday and today* (pp. 43-70).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https://doi.org/10.1037/0022-3514.92.3.434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3-33). New York,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Seibert, S. E., Crant, J. M., & Kraimer, M. L. (1999).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suc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3), 416-427. https://doi.org/10.1037/0021-9010.84.3.416

Shim, M. K., Suh, Y. S., & Kim, S. Y. (2022). Comparison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on effects und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ramework: Percentile bootstrap and bias-corrected bootstrap.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41*(2), 103-131. http://doi.org/10.22257/kjp.2022.6.41.2.103

Sinai, D., & Tikotzky, L. (2012). Infant sleep, parental sleep and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mothers on maternity leave and in families of working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2), 179-186. https://doi.org/10.1016/j.infbeh.2012.01.006

Tokar, D. M., Savickas, M. L., & Kaut, K. P. (2020). A test of the career construction theory model of adaptation in adult workers with Chiari malform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8*(3), 381-401. https://doi.org/10.1177/1069072719867733

Wanberg, C. R., & Kammeyer-Mueller, J. D.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proactivity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3), 373-385. https://doi.org/10.1037/0021-9010.85.3.373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shing.

Xu, B., Stephens, J. M., & Lee, K. (2022).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emotional engagement: An exploration in WeChat discussion. *ASCILITE Publications,* e22028-e22028. https://doi.org/10.14742/apubs.2022.28